박원자의 母情佛心 27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



▶ 한줄 요약
동봉 스님은 강원도 원주 산골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농부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스님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고, 사법고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방황하던 중 어머니와 찾은 구룡사서 법문을 듣고 감동해 출가하게 된다. 어머니도 출가를 아들에게 권유했다.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하거라."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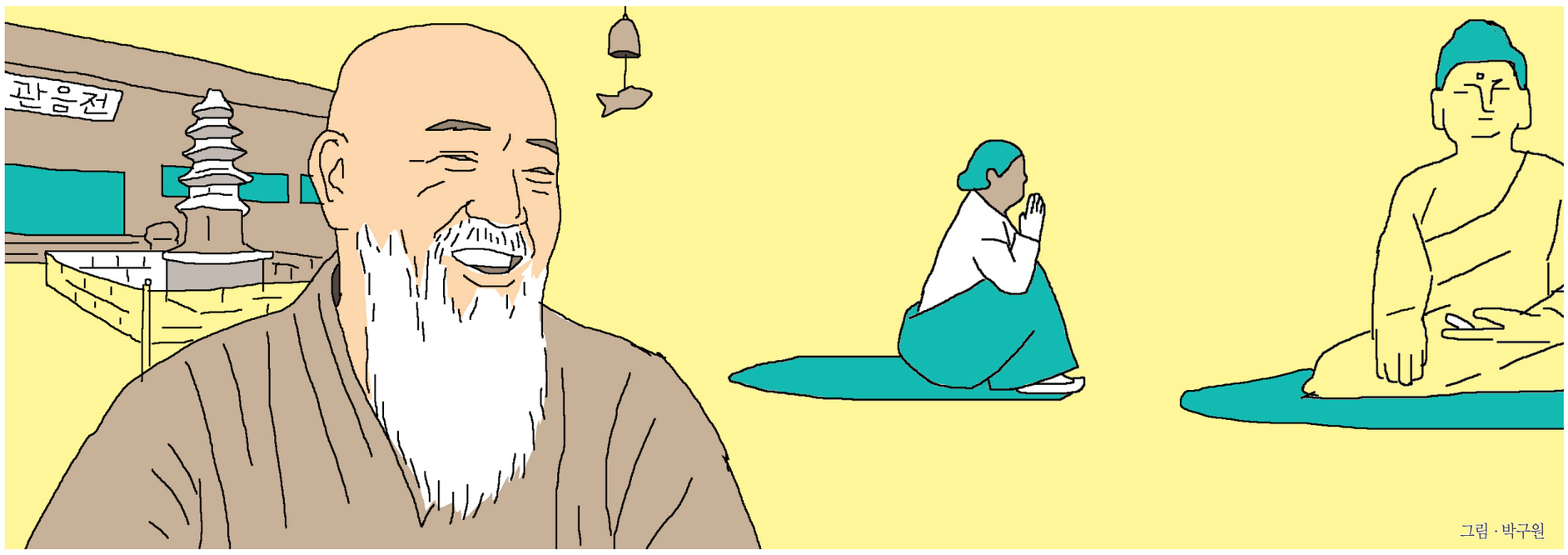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은 불교계의 보기 드문 저술가다. 〈금강경〉〈천수경〉〈범망경 보살계본〉〈용성스님 어록〉 등 수십여 권의 경전을 번역 · 발간했다. 에세이집 〈마음을 비우고 차나 한 잔 들게〉와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 〈반야심경〉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글려준 오디오 에세이집 〈오디오 반야심경〉은 수 십 만 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남들이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할 때 방에 들어앉아 경전을 통독하며 글을 쓴 결과다. 스물넷에 출가해 일흔이 넘은 지금도 계속 경전을 번역하고 글을 쓰고 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 뿐이라는 게 변이지만, 어쨌든 천생 저술 수행자임에 틀림없다.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가 전부라는데, 한문투성이의 경전을 어떻게 읽고 번역한 것일까.

아버지는 강원도 원주 산골에 집을 지어 아들 셋, 딸 하나를 데리고 이사를 했다. 학교가 왕복 60리 거리에 있어 자연스레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막내 여동생은 11살이 되어서야 동네에 생긴 분교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명석했던 둘째 아들은 서당에 보내고 막내아들에게는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열세 살에 농부가 되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 아들이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동네 어느 집에선가 책을 빌려다주셨다. 저녁으로 그것을 읽고 방에 두면, 아버지는 그게 남의 책인지 알면서도 책장을 뜯어 담배를 말아 피우셨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자식을 말리는 아버지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다. 작은 형이 이런 동생이 안 되어보였는지 일주일에 한번쯤 서당에 데리고 갔다. 〈명심보감〉을 배웠다. 3개월 만에 한문 원문과 해석본을 다 외웠다. 출중한 잠재력과 앞날을 꿰뚫어 본 듯 훈장님이 옥은(玉隱)이라는 호를 지어주며 말씀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옥이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 뒤 〈동몽선습〉도 배웠다. 그러면서 한문에 문리를 틔웠다. 15살에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재건학교에 나가 목말랐던 배움에의 갈증을 달랬고, 17살이 되기 전 중고등 과정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내친 김에 사법고시를 준비해 도전했으나 낙방했다. 상심해 있던 23살 즈음이었다. 음력 2월 보름 열반재일이던 그날, 어머니께서 "오늘은 엄마하고 절에나 가자"고 하셨다. 어머니가 다니던 치악산 구룡사에 갔다. 절이라고는 처음 갔던 그날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열반이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다."

막연히 죽음이 열반이라고 알았던 청년에게 그 설법은 충격이었다. 동네 형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성경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그렇듯 멋진 말은 처음이었다. 불교를 깊이 좋아하게 된 순간이었다. 자식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 채는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 어머니가 절에서 내려오며 무심히 말씀하셨다.

"어느 스님께 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너는 얼마 못 산다고 하시더라."

"그래 얼마나 산대요?"

"서른아홉까지 산다더라."

마치 남의 말 하듯 담담히 얘기하는 어머니께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주팔자를 바꿔야지!"

어머니는 마치 오래 동안 이때를 기다려온 듯 간단하게 방법을 말해주었다. 절에서 불경을 빌려다주면 열심히 읽던 아들이었다. 토만 달린 한문 〈법화경〉을 술술 읽어 내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심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식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는 한문 잘 읽는 아들이 절에 들어가 맘껏 공부할 수 있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너는 아무래도 절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여기 세상에 있어봐야 농투산이(농사꾼) 밖에 더 되겠니. 절에 다니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니까 부처님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더구나. 부처님한테 가서 공부하거라."

열반에 대한 신선한 얘기를 듣고 첫사랑처럼 불교를 좋아하게 된 차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더해져 출가를 결정했다. 다음 날 집을 나와 열반에 대한 법문을 들었던 구룡사로 갔다.

"어머니는 한글을 겨우 깨친 분이셨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오히려 수행자인 저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이르셨어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마 제게 출가를 권하실 때도 인생을 관통하는 인연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삶을

> **불교계 대표 저술가 동봉 스님**
> **원주 산골 빈농 아들로 태어나**
> **어렵게 학업…사법고시서 낙방**
> **방황하던 중 모친과 찾은 사찰**
> **법문에 감동…母, 출가 권유해**
> **"좋은 인연, 부처 시봉 잘해라"**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을 비운 분이었죠."

젊은 날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상처는 해인사에서 은사가 된 고암 스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꽃을 피웠다. 5개월 만에 구룡사를 떠나 해인사 용탑에서 친견한 고암 스님께서 물었다.

"한문은 좀 아느냐?"

"조금 배웠습니다."

당시 종정이며 용성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스님은 한문으로 된 〈용성어록〉을 내놓았다. 토만 달린 순 한문의 글이었다. 사흘 만에 그 책을 막힘없이 읽었는데, 고암 스님께서 용성 스님의 오도송에 대해서 묻고는 특출한 해독에 흡족해하셨다.

"너는 내 시중들 것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 뒤 "참선하려면 이뭣고를 찾을 것이며, 경을 읽으려면 〈금강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려면 〈범망경 보살계본〉를 공부하거라. 그리고 출가자도 부모를 저버리면 안 되니 〈부모은중경〉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라' 는 말씀을 받들어 저 경전들을 번역 · 발간했다.

사미계를 받기 전, 어머니가 용탑에 오셨다. 큰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행자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셨다.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구나. 네가 부처님을 만났으니 잘 되었고, 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인연이구나."

어머니가 54세, 아들이 24세 때였다.

"출가해서 때로 흔들릴 때 두 가지 일이 저를 다잡아 주었는데 하나는 정말 참 좋은 인연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룡사로 들어갈 때 기차역까지 바라다 주며 부처님 시봉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돌아서서 우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보내주지 않는 게 미워서 칡넝쿨로 만든 새끼줄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만큼 미워한 분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리며 힘을 내었죠."

스님은 출가수행자가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0여 년 모시고 살았다. 지금의 곤지암 우리절을 짓고 절 다니기를 좋아하던 어머니를 모셔왔다. 83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의 하루 일상이 온통 기도였다. 하루 종일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하셨다. 잠자고 공양하는 시간 빼고는 온통 기도였다. 고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을 때도 3번, 7번, 21번, 108번으로 절을 늘려갔다. 결국 1년 동안 1080배를 빠짐없이 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렇게 수행자처럼 사시는 어머니께 아들 스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부처님 소중한 걸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스님께서도 부처님 시봉 잘 하시고 큰스님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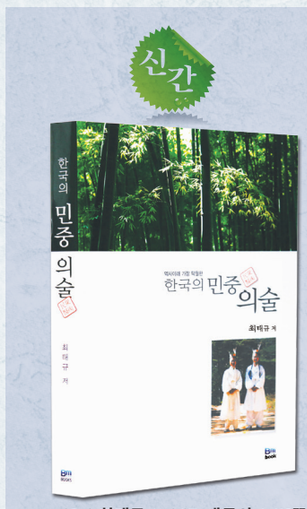
몸은 쇠락해져갔으나 부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셨던 신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의 세계는 늙지 않는 것 같았다. 늘 담담해보였다. 언제나 푸근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흔히 나이 들면 늘게 되는 푸념들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잠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군 누구냐고 나 때문에 고생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시곤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180cm의 장신에 인물이 훤하셨던 아버지 곁에 늘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런데 그 한 마디로 맺힌 한이 눈 녹듯 사라지셨던지,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씀을 단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심한 지아비에게 선물 한 번 받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아들 스님이 여든셋 생신 때 금목걸이며 팔찌를 사드렸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가친척들이 사는 고향에도 다녀왔다. 어머니는 다녀와 보름만에 세상을 떠났다. 새벽 3시, 법당에 올리던 다기물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침대 모서리에 앉은 채 돌아가셨다. 아들 스님은 49재를 지내며 뜨거운 사모곡을 올렸다.

"대개 들으니 염불 삼매에 들어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면 살아생전에 아미타불과 세 분의 크신 보살님의 영접을 받아 바로 극락세계 상품상에 태어난다고 하던데 과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밤중까지 한 생각 흐트러짐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염불하셨으니 능히 앉으신 채로 돌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작가〉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